

만남 - I

Friendship-1

김희곤 / 흥간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Hee-Gon

양평군 용문 광탄리에 시범마을을 성공적으로 개발한 입지로 전원마을의 목가적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는 모범마을에 이 지역 토목회사의 사무실을 마련하는 작업이었다.

IMF이전에 지상2층, 지하1층 규모의 R.C구조로 계획되었던 프로젝트는 IMF라는 시련속에서 지상1층 규모로 최소의 시공비용이라는 물리적인 필터로 걸러진 결론이 현재의 시공안이다. 극도로 냉각되어가는 건축환경속에서 다시한번 작은 프로젝트를 대하면서 보다 더 건축가적인 삶을 사는 태도를 발견해 내었던 작업이었다. 현실적인 최소의 공사비는 재료의 솔직한 사용, 디테일의 단순화, 적은 공사비, 비숙련공에 의한 작업... 이러한 제약속에서도 작은 꿈과 낭만만은 이 장소에 남겨두어야 했다. 우선 가난하게 산다고 저급한 문화가 아니라고 늘 생각해 왔다. 전통민가의 풍성한 공간의 연계성을 산업사회의 기계적 삶속에 부여함으로써 가난함을 따뜻한 정신적 부유함으로 바꾸고 싶었다.

평면계획은 우선 크게 직사각형 2개가 중첩되면서 중정과 기타외부와 내부의 중간영역에 속하는 공간들이 탄생한다. 건축주 두사람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회사의 미래와 꿈이 하나로 합일되는 정점인 중정에 한그루 느티나무가 생명을 상징하고 있다. 내부의 기능적 사무공간의 방들은 모두 중정을 향하여 개방되고 있다. 전통적인 담장과 마당의 여유와 진입의 기대감을 부여하고자 했다. 그 기대감은 내부 기능적인 공간에서 다시한번 천창을 통하여 다시 확대하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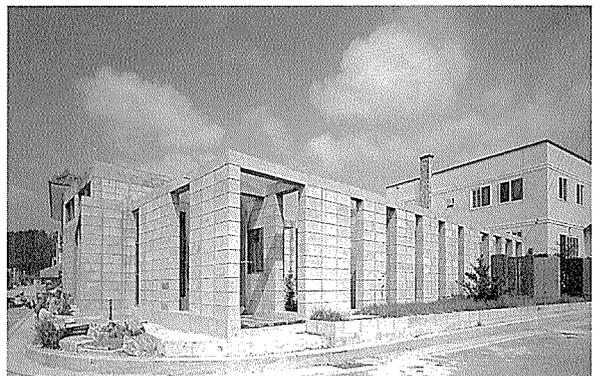
재료가 가지는 직각의 후레임을 다양한 공간의 연계로 부드럽게 흐트리고 싶었다. 가능한 재료의 속성을 그대로 노출하고자 했다. 시공의 거칠음 자체를 유도하고자 했다. 값싼재료를 통하여 또다른 편안함을 찾고자 했다. 짧은 시공기간과 숙련도가 낮은 시공 참여자는 더욱더 육체적 밀착도를 느끼는 이웃의 하모니였다. 이 육체적 밀착도는 우리네 이웃의 따뜻한 정서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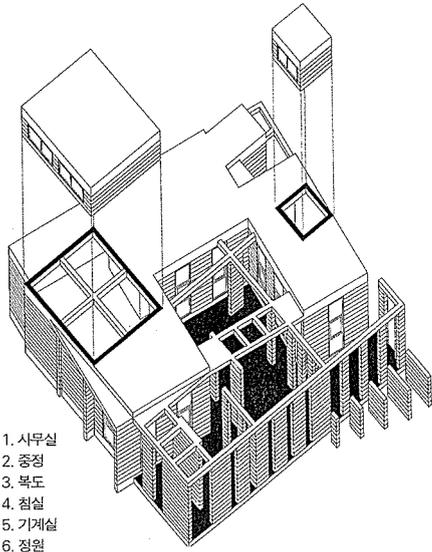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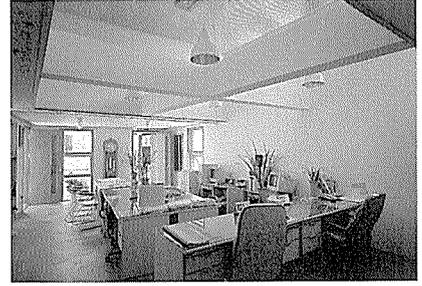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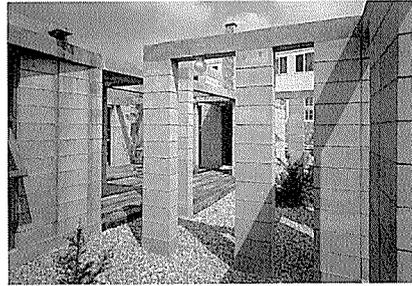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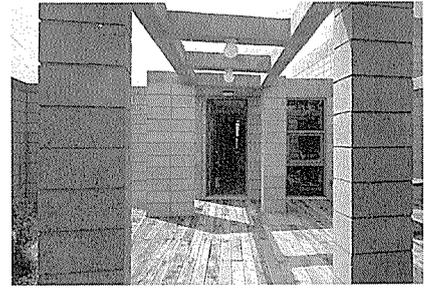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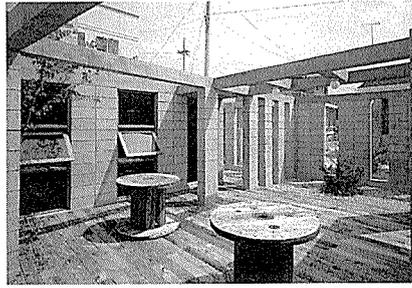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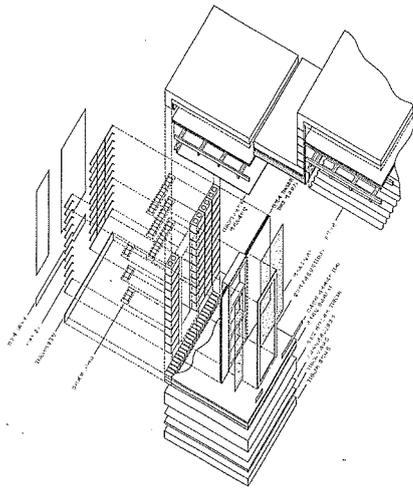
하나의 건물속에 천사의 공간과 거지의 공간이 공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변화되는 감정속에서 서로 다른 장소적 위안이 생길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담장이 공간속에 녹아들어가서 반쯤 열리고 반쯤 닫힌 공간이 시선을 차단하지 않음으로써 서로의 마음이 열려서 공존의 장으로 확장되기를 원했다. 시공과정내내 비용절감과 최소한의 공간확보라는 양자의 공통점을 찾으려 분주했다. 그 분주함속에서 늘 건축가의 편에서 이해해준 건축주인 장원석사장, 시공자인 최영택사장, 오병용주임 모두가 만남으로 시작해서 불력하나 같이 나르며 공존을 향하여 마음을 열었던 사람들이다. 그 만남의 제일 중심에 있는 박인영씨에게도 감사한다.

질박한 상황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건축가의 의지를 이해하는 여유는 풍족한 공사비에서는 느낄 수 없는 게릴라전에서 만 느끼는, 육체적 밀착에서만 느끼는 온기를 오랜만에 느껴본 좋은 경험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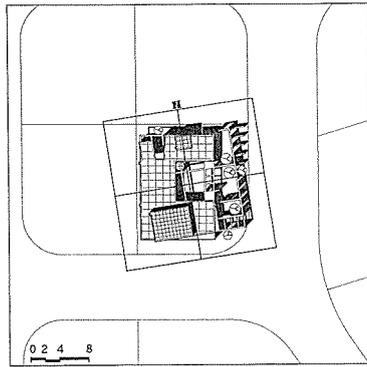
건축개요

위치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광탄리 710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주차장정비지구		
주요용도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258.70㎡	건축면적	99.16㎡
건폐율	38.33%	연면적	99.16㎡
용적률	38.33%	규모	지상1층
구조	조적조		
주요외장	8인치 시멘트블럭		
설계담당	원윤정, 박주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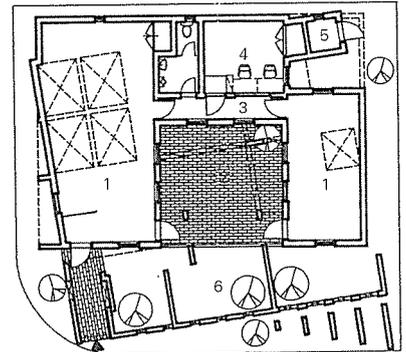




- 1. 사무실
- 2. 중정
- 3. 복도
- 4. 침실
- 5. 기계실
- 6. 정원



배치도



1층 평면도

